

존경하는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노영민 의원님, 박상돈 의원님,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이희평 회장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준우 부사장님!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참여해 주신 전력 산업 관계자 여러분을 비롯하여,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를 빛내주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국제전력IT 및 전기설비전」 개막식 행사에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게 된 본 전시회는, 금년에는 세계 33개국 230개사, 300여명의 발주처·바이어 여러분들의 참여하에, '전력플랜트'와 '전력기자재'를 결합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전력산업 국제 전시회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의 전력산업은 한국 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1961년 한국전력(KEPCO)이 출범할 당시만 해도 한국의 발전설비는 일제 강점기의 유산으로 물려받은 360MW에 불과했습니다만, 47년이 지난 지금, 약 200배 증가한 약 70,000MW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아시아 최초로 765kV 초고압 송전망을 독자 기술로 구축하는 등 세계 10대 전력강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설비규모 뿐만 아니라 정전시간(18분·호/년), 송배전손실율(4.0%), 전력요금, 부하율(76%) 등 주요 지표들도 우리 전력산업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에 있다는 점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전력업계는 내수 시장에서 쌓은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곳곳에서 발전 및 송·변전 설비의 건설·운영 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필리핀, 중국 등지에서 현재 2,645MW 규모의 발전설비를 운영하면서, 무사고 운전 등 안정적 전력공급을 통해 높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현대중공업, 현대건설 등 한국 종합건설업체(EPC) 업체들 역시 국내 시공경력을 바탕으로 지난해만 130억불의 발전·담수플랜트 해외수주를 달성하였으며, 중전기기업체들도 우수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지난해 42억불 수출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전력회사 뿐만 아니라, EPC업체, 중전기 기업체도 세계 메이저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어, 한국의 전력산업은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의 수직적 일관체제를 보유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



## 祝 辭

이, 한국의 전력산업은 전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짧은 기간에,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설비규모와 기술능력을 갖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초 취임하신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세계 곳곳의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샐러리맨 신화를 창조하였듯이, 한국 기업인들은 혹독한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고객감동을 실현하는 강력한 열정과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하우와 열정은 급속한 경제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게, 단순히 발전소 건설 이상의 큰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전시회가 양국 기업간 최적의 파트너를 발굴하고, Win-Win할 수 있는 상호협력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KOTRA와 전력기술인협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전시회 출품을 준비해 주신 전력업계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내외귀빈과 관람객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 5. 14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 **안 철 식**